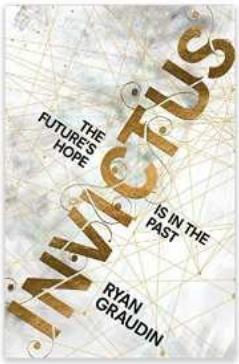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INVICTUS
가제 : 인빅투스
저자 : Ryan Graudin
출판사: Little, Brown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7년 9월 26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이탈리아, 헝가리, 영국 판권 계약 체결**
*** "'닥터 후'와 '파이어플라이*(Firfly)*'의 요소들이 강력하게, 매력적으로 반영된 생생한 시간여행 이야기" – 커커스 리뷰**
***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긴 역사의 캔버스 위에 과거와 미래를 경계 없이 잘 조합한 책. 놀랍도록 복잡한 여행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도 작가의 탁월한 글 솜씨가 엿보인다." –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The Young Elites*』의 작가 마리 루**

미래에서 온 사람이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과거의 인물과 사랑에 빠진다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시간여행 '도중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소설을 써온 작가는 어느 정도 익숙한 시간 여행의 소재에서 벗어나 아주 참신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SF 모험 이야기를 완성했다. 기원전 로마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간 여성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검투사와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서기 2371년, '센트럴 시간여행자 연합' 소속인 엠프라는 위험천만한 시간 여행을 떠난다. 목적지는 기원전 95년의 로마 콜로세움, 표면적인 목적은 1년 내내 취재하고 기록해온 로마 검투사들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중요한 검투사 시합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엠프라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현재까지 구축된 역사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지 않는 진실, 오늘 시합에 출전할 검투사 가이우스의 생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역사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뛰어난 검투사이지만 어느 경기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친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시간여행 역사가가 된 엠프라는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임신 9개월하고도 며칠이 지나 불룩 솟아오른 배를 안고 선혈이 낭자한 콜로세움으로 향한 건 단순히 그런 책임감이나 학자로서의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제 곧 세상에 태어날 뱃속의 아기가 바로 경기장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검투사, 가이우스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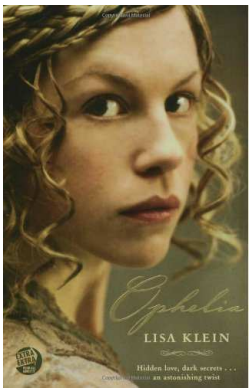
시간여행자는 다른 시대에 가더라도 마치 그 시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그곳 사람들, 사건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철칙이다. 열여덟 살 때부터 평생을 역사가로 살기로 결심한 엠프라는 과거를 사료가 아닌 자신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이 일에 금세 심취했다. 그러나 열정이 너무 넘쳐흐른 나머지, 엠프라는 규칙을 어기고 한 검투사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당사자의 생각을 들어봐야겠다는 열망에 사로 잡혔다. 문제는 그 위반 행위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사태였다. 엠프라와 마주 앉은 가이우스가 서로에게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느낀 것이다. 2500여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뛰어 넘어 사랑에 빠진 두 사람에게 얼마 후 결실이 찾아와 엠프라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다.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엠프라는 자신이 사는 시대, 현대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에 아무도 모르게 이 특별한 출산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가이우스의 경기를 보러 간 것이 화근이었다. 우렁찬 관중의 함성 속에 잔인한 검투 시합이 시작된 직후, 양수가 터져버렸다. 결국 가이우스의 생사는 확인하지도 못한 채 엠프라는 헐레벌떡 시간여행 비행선으로 돌아왔지만 전속력으로 달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 비행선에서 태어나고 말았다. 어느 시대, 어느 시각에 태어났는지 알 수 없는 아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사는 엄마와 아빠를 둔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파웨이 가이우스라 이름 붙여진 이 아이가 일곱 살이 되던 해, 계속해서 역사가로 일하던 엠프라는 시간 여행 미션 도중에 어딘가로 사라지고 만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파웨이는 엄마의 행복을 찾기 엄마가 일하던 '센트럴 시간여행자 연합'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치르지만 탈락하고, 큰 실의에 빠진다. 그때, 한 미스테리한 남자가 해적선 '인빅투스'의 선장이 되어보지 않겠냐며 파웨이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파웨이는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과거 어느 시점을 직접 시간여행으로 찾아가 값진 보물을 가져오는 역사 해적이 된 파웨이에게 타이타닉 호를 찾아가 귀한 책 한 권을 찾아오라는 작전 명령이 떨어지고, 여느 때처럼 실력 발휘를 하러 나선 파웨이는 그곳에서 엘리엇이라는 소녀와 맞닥뜨린다. 파웨이보다 한 발 앞서 이미 그 책을 손에 거머쥔 이 정체 모를 소녀는 책을 줄 테니 자신도 같은 회사에서 해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희한한 요구를 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이 당당한 요구에 파웨이와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해적단의 존재를 엘리엇에게 알려준다. 대체 엘리엇은 어느 시대에서 무슨 목적으로 나타난 존재일까? 사라진 파웨이의 엄마와 무슨 관계일까? 정체를 꽁꽁 숨긴 엘리엇의 이야기가 하나 둘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서로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된다.

흥미진진한 소재와 정감 가는 등장인물들이 읽는 재미를 더하는 재미 있는 SF 소설이다.

<저자 소개>

라이언 그라우딘(Ryan Graudin)은 사진 작가 겸 작가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카네기 메달 수상 후보에 오른 『Wolf by Wolf』와 『The Walled City』, 『Blood for Blood』 등이 있다.



제목 : OPHELIA
가제 : 오필리아
저자 : Lisa Klein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PLC
발행일: 2006년 11월 6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영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데이지 리들리 주연 영화로 제작 예정 – 나오미 왓츠(거트루드 왕비), 클라이브 오언(클로디어스 왕), 조지 맥케이(햄릿) 출연**

*** "작가의 인상적인 첫 번째 소설. 원작의 대사와 극작가로서 작가의 재능을 자연스럽게 결합했다.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잘 모르는 십대들은 로맨스와 강인한 여주인공이 나오는 이 신선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낄 것" – 「퍼블리셔스 위클리」**

*** "햄릿의 등장인물들과 처음 접하는 십대들도 생기 넘치는 배경과 심장을 쿵쾅대게 하는 로맨스, 생생하게 그려진 고문 장면,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 남을 것인가에 관한 오필리아의 격정적이고 솔직한 의문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 「북리스트」**

복수에 사로잡힌 왕자, 햄릿의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영화나 연극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등장인물 모두가 죽고 죽임을 당하는 이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주인공인 햄릿이 아닌 주변 인물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학생들에게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햄릿의 연인, 오필리아가 맞이하는 자살이라는 결말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작가는 햄릿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후 미쳐버린 아름다운 여성, 오필리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햄릿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준다. 새로운 해석과 함께 결말을 바꿔 오필리아가 자살을 택하는 대신 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현장에서 무사히 살아 남아 생을 이어간다는 뒷이야기와 원작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오필리아의 어린 시절, 햄릿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 복수극이 두 연인의 삶에 끼어들기 전에 서로를 더없이 아끼고 사랑했던 젊은 남녀의 알콩달콩한 로맨스 장면도 추가되어 더욱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이 새로 쓴 햄릿과 오필리아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엘시노어 왕국의 작은 마을에서 나라의 재상인 아버지 폴로니어스, 오빠 레어티스와 함께 살던 시절, 오필리아는 한 마디로 선머슴 같은 말괄량이 여자아이였다.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에 집 가까운 숲과 정원을 마구 뛰어다니며 풀밭에서 잠들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시장에서 몰래 사과며 자두를 몇 알 훔쳐서 먹곤 했던 이 장난꾸러기 소녀는 사실 마음 속에 깊은 슬픔을 숨기고 있었다. 엄마가 자신을 낳다가 그만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엄마 없이 자라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오빠와 아버지까지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 어린 오필리아의 마음에 깊은 죄책감을 심었다.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는 무뚝뚝한 아버지의 태도도 왠지 엄마의 죽음 때문에 원망하는 반응처럼 보여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레어티스를 잘 키워야 한다는

열망으로 아버지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덕분에 오필리아도 오빠 곁에서 함께 공부하며 이것저것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열 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오빠 뒤를 졸졸 쫓아 왕궁을 방문한 오필리아가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에 꼭 들었던 거트루드 왕비는 이듬 해, 엄마 없는 이 소녀를 직접 키우며 제대로 된 여성으로 가르치겠다는 의사를 폴로니어스에게 전한다. 아버지의 승낙으로, 마침내 오필리아의 왕궁 생활이 시작됐다.

왕비와 왕실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아름답고 우아하면서도 어릴 때의 활기가 뛰어난 재치로 남은 매력적인 여성으로 자란 오필리아가 열여섯 살 되던 해, 어느새 훌쩍 자란 왕자 햄릿은 철부지 머슴애 같았던 오필리아의 성숙한 매력에 푹 빠진다. 두 사람의 가슴 뛰는 사랑은 가족들 몰래 작은 종탑에서, 어둠이 내려 앉은 복도에서 몰래 만나 손을 맞잡고 아무도 들리지 않게 귓속말을 속삭이며 점점 더 커져만 가고, 두 연인은 이내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나 남몰래 키워온 사랑이 한창이던 어느 날 엘시노어 왕궁에 비극이 시작된다. 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며칠 되지도 않아 거트루드 왕비가 왕의 동생인 클로디어스와 재혼을 하면서 그가 새로운 왕이 된 것이다. 충격에 휩싸인 햄릿은 아버지가 클로디어스의 계략 때문에 독살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생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복수하고 말리라 다짐한다.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오필리아는 이미 두 사람만의 결혼식을 올린 이후라 남편이 된 사랑하는 햄릿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도울 방법을 찾아 나선다.

복수에 눈이 먼 햄릿이 미친 척 연기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필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가 죽임을 당한다. 햄릿의 시선이 아닌 오필리아의 시선과 심경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 이야기에서 오필리아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고 햄릿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가는 오빠 레어티스를 보면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원작처럼 자살을 택하는 대신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 프랑스로 몸을 피한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야 하는 오필리아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주 놀랍고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원작의 유명한 대사를 어느 정도 차용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에 맞는 톡톡 튀는 대화와 절로 웃음 짓게 하는 위트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흥미를 더하는 창의적이고 신선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리사 클라인(Lisa Klein)은 영문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현재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